

▷서각은 하나의 수행이다. 1각3배의 마음으로 칼끝에 혼을 불어넣는 정성은 구도자의 입념과 같다. 사진은 4월1일부터 서울 공평아트센터에서 서각개인전을 갖는 지상스님 작업 모습.



▷해인사 대적광전 주련. 각자(刻字)형태의 전체적인 조화가 절묘하다.



▷대웅전 현판으로 정결한 서체에 번침표자를 내 아름다움을 더했다.

나무와 대화하며 **書刻** 글 새기는 수행

서각으로 수행하는 스님들

깨달음 얻기 위한 고행의 과정
덕기스님 등 30여명 서각 수행
"한 획 새기기 전 3배하고 작업"

서각과 수행, 그리고 불교. 이들은 개별단어로 표현되지만 실은 하나의 몸체를 갖고 있다. '해탈'을 추구하고 깨달음을 얻기 위한 '고행'이라는 과정을 사량한다.

현재 서각을 하는 스님은 대략 30여명 정도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중 현판이나 주련을 제작할 수 있는 정도의 전문가는 대략 10여명 정도며, 4명의 스님이 서각협회 차원에서 활동하고 있다. 전통서각을 대표하는 한국서각협회에는 협회이사로는 상임스님(상암사 주지)과 불교서각의 덕기스님(경기 시흥 범룡사 주지) 해원스님(안봉사 주지)이, 한국현대서각협회에는 지상스님(법안경관제작연구소장)이 각각 속해있다. 이밖에 원표스님(경남 사천 서봉사)과 상묵스님(부산 통방사 주지) 등이 지방에서 비교적 활발한 활동을 보이고 있다.

서각을 하는 스님들은 '1각3배'하는 마음으로 작업에 임한다고 한다. 옛 스님들은 보통 서예는 물론 주련과 현판을 직접 새기 때문에 서각에도 능했는데, 한 획을 새기기 전에 3배를 하고 작업을 시작했다고 한다. 지금은 그렇게는 못하더라도 최소한 그와 같은 정성된 마음으로 서각을 한다는 것이다. 그러다보면 자연히 '서각삼매(書刻三昧)'에 빠지게 된다고 말한다. 시간이 흐르는 것도,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조차 의식하지 못할 때가 많은데, 이럴 때는 아침에 작업을 시작해 다음날 아침이 돼서야 비로소 자신이 숨쉬고 있음을 느낀다고. 그래서 서각하는 스님들은 정신을 모으는 수행으로 서각을 최고의 방편으로 치기도 한다.

그러나 서각하는 스님들의 활동은 대체적으로 미약한 편이다. 그나마 다양한 것은 스님으로는 최초로 지상스님이 4월1일과 13일부터 각 7일간 서울 공평아트센터와 마산 대우갤러리에서 개인전을 열고 서각에 대한 불교계의 인식전환을 꾀하게 됐다는 것이다.



▷덕기스님



▷성일스님



▷원표스님



▷상묵스님

사람에 가만 제일 먼저 눈길을 끄는 것이 대웅전을 비롯한 전각의 현판들이다. 또 권역을 비롯해 일주문 명부전 등의 주련들 역시 서각문화의 대표를 불교문화로 그 모양과 기법이 아름답고 웅장하다. 서각(書刻)은 글자를 새긴다는 뜻이다. 그러나 그 과정은 혼을 불어넣는 정성과 세심한 안목을 필요로 한다. 그래서 서각하는 이들은 이 작업을 '철저한 수행'이라 말한다.

서각은 나무를 고르는 데서부터 시작된다. 뒤틀림이 없고 견고한 홍송(紅松)을 주로 선택한다. 작품에 따라서는 들배나무나 향나무 느티나무 종류가 쓰이기도 한다. 다음엔 나무를 잘리는 작업이 진행된다. 나무를 거꾸로 세워 수분을 빼고 비를 맞지 수액을 빼낸다. 그런다음 과육을 껍질과 나무를 말린다. 이렇게 말린 나무를 용도에 맞게 재단을 하고 그 위에 서고(書稿·각을 하기 위한 글자)를 붙인다. 서고를 붙이는 방법도 글씨와 나무결에 따라 다양하다. 여기까지가 각을 하기 전까지의 준비작업이다.

그러나 이 작업들은 단순한 물리적 행태의 노력만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 나무를 선택하는 순간부터 나무와 대화를 하기 시작한다. 서각인들은 나무도 사람과 같다고 말한다. 그래서 한달이고 두달이고 서로의 마음이 일치할 때까지 수시로 감정을 교환한다. 그렇지 않으면 나무는 변덕스러워서 뒤틀고 성질을 부린다. 어떤 글을 새길 것인가에 대한 최종 판단은 서로의 마음이 일치했음을 알리는 신호다.

각자(刻字)를 시작하면서부터는 삼매에 빠진다. 고도의 정신집중과 인내력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요건이다. 자칫 한순간을 놓치면 글자가 날라가 버리기(획이 잘못 파지고 있다)는 것을 서각인들은 이렇게 말한다) 때문이

다. 각을 할 때에는 주로 칼과 칼을 도구로 사

뒤틀림 없는 紅松 주로 선택
거꾸로 세워 수액을 빼낸후
용도따라 재단 書稿 붙인다
나뭇결따라 조심스럽게 썬
글자 끝부분까지 말끔히 한후
마름질하고 색을 입힌다

도장 파듯 기계적 새김이 아닌
혼을 불어넣는 작업
4월5일 불교인서각협회 창립

용한다. 이때에도 나무와의 대화는 계속된다. 길을 따라가듯 칼을 따라 조심스럽게 파내려 가면서 칼과 칼에 자신의 혼을 불어넣는다.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비백(글자의 끝부분)처리. 호흡을 고른 후 마지막 혼신을 다해 비백을 다듬는다. 화룡정정(畫龍点睛)의 순간, 나무와 글 그리고 조각가가 마침내 하나가 되고 새로운 생명 하나가 태어난다. 심심상인(心心相印), 새생명의 태동과 함께 해탈의 법열이 깃든다. 각자가 끝나면 서고를 떼어내고 마름질을 한 후 색감을 입힌다. 이 도 소홀히 해서는 안될 과정이지만 이미 법열을 맞춘 구도자에게 내리막 길을 걷는 듯 흥가분하다.

40여년간 관각에 생애를 쏟아부은 각자장 중요무형문화재 차재 오옥진씨(65)는 서각을 이렇게 얘기한다. "도장을 파듯 기계적으로 새기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균형과 글자 하나하나의 완벽한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쉬지 않고 한 곳으로 흐르는 물과 같이 담담하면서도 투명하고, 작업자세를 즐기는 일념으로 혼을 불어넣는 것입니다." 각법은 나무의 결과 글자 형태를 고려해 선택하는데 음각(陰刻)·음평각(陰平刻)·음양각(陰陽刻) 양각(陽刻)이 있다. 이중에서도 음각은 모든 각법의 근간을 이루는 가장 중요한 각법이다. 우리나라 서각의 역사는 대략 삼국시대 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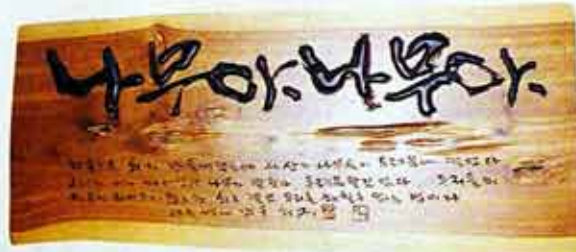


▷서각에 쓰이는 도구들. 칼과 끌은 서각인들에게 도구기 아닌 자신의 일부뿐이다.



▷경관은 글자를 제외한 비석부분을 파내는 양각의 대표적 형태다.

취재수첩 '경제성 없다' 전문가 감소세... 동호인은 늘어



최근 10여년간 서각인구는 상당수 늘어났으며, 1년에 한 번 열리는 회원전에 작품을 출품할 정도의 서각인은 대략 4백여명으로 추산되고 있다. 그러나 이중 전업 서각인은 대략 30~40명 정도로, 하나의 예술장르로는 전문가 수가 매우 적은 편이다. 여기에는 대략 몇 가지 요인이 있다. 우선 오늘날까지도 남아있는 기(技)·공(工)에 대한 천민사상이 꼽힌다. 그런데다 서각을 예술의 한 장르로 인정

하지 않고 전통사문화 정도로 취급하는 풍토가 아직도 남아있다는 점도 전문가 양산을 저해하는 요소다. 그러나 가장 큰 요인은 경제성이 없다는 점이다. 대량생산이 불가능해 생활수단으로 삼기에는 어렵기 때문이다. 서각 동호인이 늘어나는 추세면서도 전문가가 오히려 줄고 있다는 것이 이를 증명한다. 물론 일반에게도 아직까지 서각이라는 용어자체가 생소할 정도로 잘 알려

져 있지는 않다. 하지만 서각은 발전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것이 대체적인 의견이다. 공예품으로서의 서각에 미적인 면과 장식적인 면을 동시에 추구할 경우 현대 조형예술로서 뿐만 아니라 실생활에서도 자리잡을 수 있다는 것이다. 불교서각 역시 현관 주련 외에 부처님 말씀, 탱화 실용나한 등 소재가 다양하고, 초보자라도 3개월정도 익히면 자기 작품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점이 착안해 포교의 한 방법으로 개발한다면 발전가능성은 무한할 것으로 보인다.